

## “서민생활의 필수품 LPG”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



최근 국제유가·국제원자재가격은 물론 수입곡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생필품가격도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생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MB정부는 특별히 물가관리를 하겠다는 생필품 52개 품목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 관리품목 안에는 LPG도 포함되어 있다. 즉, 정부가LPG를 서민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정하고 특별관리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 LPG가 생필품으로써의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앞으로라도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정부가 LPG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생필품으로써의 LPG가격 안정화와 우리 LPG업계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

정부가 LPG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옹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생필품으로써의 LPG가격 안정화와 우리 LPG업계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한다.

시코자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 40원/kg이던 프로판 개별소비세(구 특소세)가 '08.1~3월 한시적으로 인하(12원/kg)한데 이어 '08.3.28일부터는 20원/kg으로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20원/kg이 엄연히 부과되고 있다.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사치품 등에나 부과되던 세금이 아직도 생활 필수품이자 서민연료로 대표되는, 게다가 신정부가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힌, LPG에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LPG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구조개선 및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교롭게도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려 밸브가격상승 및 차단기능형밸브 사용의 무화, 노후용기 증가 등에 의한 용기관리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소비자 가격도 나날이 치솟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및 밸브 사용연한제 실시 등을 통해 용기관리효율화를 달성하고, 배송센터 확대추진으로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값싼 연료인 DME(디메틸에테르)를 LPG에 혼합해 보급함으로써 LPG소비자가 가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택시용LPG연료 면세 및 택시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08.5.1부로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문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물론 업계 최저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품가격의 약 25%가 세금인 것과, 그 동안 대다수가 현금거래를 해오던 택시고객이 의무적으로 카드거래를 해야함에 따라 충전소가 떠안아야 할 수수료부담은 막대하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자료를 근거로 우리 협회가 자체 추산한 결과 충전소가 부담해야 할 택시에 대한 연간 카드수수료만 약 420억원에 달한다.

특히 택시연료용 LPG의 경우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포함가격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던가 아니면 큰 폭의 수수료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낮아진 수수료만큼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LPG경차 허용이 4월 17자로 확정 공포되었다.

명실공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LPG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LPG경차 허용은 내수를 기반으로 한국 LPG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

드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현저히 낮은 국내 경차비율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15년까지 16%선까지 증가해 국가적 에너지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경차 소비층이 여성·노약자·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다양한 모델의 LPG경차를 생산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비로소 LPG가 생활필수품으로서 또는 서민연료로서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